

정화의 작은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53 호

1 월 형제회 소식

2010 년 1 월 30 일

상반기 캠페인 헛주께: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하기"

오늘 월례회 순서

- † 오전 10 시 - Projector (아이티 대참사)
- † 오전 10 시 10 분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 오전 11 시 - 미사
- † 오전 11 시 40 분 - 월례회
- † 오후 1 시 - 친교

형제회 소식

- † 다음 달 월례회는 2 월 27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 그 동안 누적된 도서판매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취지에서 영속적 양성을 위한 참고 자료인 '데이지 꽃'을 구입, 무료 배부하오니 아직 받지 못한 회원님들은 도서 담당 (임종석 어거스틴)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2010 년 7/29(목)~8/1(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 9 차 북남미 연수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님들은 2/7 까지 봉사자(이선영)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년 연례피정(10/8,금~10/10,일)은 현재 뉴욕에 계시는 김상욱(요셉) ofm 신부님께서 지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 김상숙(크리스티나) 자매의 어머니(성원순 사라, 95 세)이 노환이 심하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병세가 호전되고 기력을 회복하시도록...

- † 최명순(루미나) 자매님이 작년 12/22, 넘어지셔서 양쪽 손목이 골절되었으나 현재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조속한 완쾌를 위하여...
- †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으로써 도와주신 류순옥(호노라다) 자매님께서 1/11, 팔손을 맞으셨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 이재연(베로니카) 자매의 시어머님(박묘실 사비나)이 향년 84 세로 작년 12/31, 한국에서 선종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신년사) "행복하게 삽시다!"

영적보조자 김은숙 리따 수녀 fmm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 한 분 한 분께 사랑이신 주님과 사부님의 축복을 빕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닐까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인식하면서 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즐겁고 신명나게 살게 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삶은 늘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았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닦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결코 큰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 안에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사시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또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더 풍부한 기쁨을 맛보는 한 해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부님 영성의 향기 (18)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 하기'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어느 형제가 어쩌다 말을 실수해서 그 말이 다른 형제를 괴롭혔을 경우에는, 그는 너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렇게 되면 땅에 엎드려 비록 그 형제가 그럴 뜻이 없어도 그 형제의 발을 자신의 입에 넣도록 하였다. 만약에 그 형제가 이를 거절하면, 그 때에는 만약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형제가 장상일 경우, 수하 형제에게 순종으로 자신의 입에 발을 넣으라고 했다. 이것도 안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장상에게 말해서 그렇게 명을 내리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원한을 제거하고 서로간의 완벽한 사랑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악행을 그에 적합한 덕행으로 막았다.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제 6 장 27 a.)

우리 형제회의 금년 상반기 캠페인 주제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 하기' 입니다. 불화의 원인 90 퍼센트가 말에서 기인된다고 하니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해법은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형제회가 되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부님 훈내를 내어 성경구절을 참조하여 짜깁기해보면, 우선 회원간에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주는 꿀 송이 같은 다정스러운 말을 하고(잠언 16,24), 거칠고 상스러운 말 버릇을 들이지 말고(집회 23,13), 남의 험담을 좋아해서 혀로 사람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고(집회 5,14), 밤 이슬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 주듯이 것처럼 선물보다 값진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고(집회 18,16), 남의 말을 옮기지 말고(집회 19,7),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고(잠언 4,24), 남을 홍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잠언 17,9),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

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만히 가라 앉힌다 (잠언 29,11)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 간다면 형제회는 물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새해 사목목표로 정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에도 일조를 하는 것이지요.

금년 내내 야고보서 1 장 26 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 하며 살아 가기로 각자 결심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야고 1,26)

회계 보고

2009 년 12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7,301.59	620.00	570.54	7,351.05
선교 후원금	8,149.28	810.00	0.00	8,959.28
도서 구입	3,298.42	195.00	2,487.85	1,005.57

새해를 맞으며

권효웅 요셉 ofs

경인년 새해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재속 프란치스코회 형제 자매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 저도 사부님의 복음적인 삶을 닦고자 재속회원이 된지도 벌써 훌쩍 5 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느끼는 후회와 아쉬움 같은 것, 새해에는 보속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많은 나눔, 사랑, 실천을 가지고 금년을 보내리라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사부님같이 작은자의 깊은 겸손을 배워 사랑의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부님을 통하여 전구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부님의 영성을 더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나, 새해에는 우리 형제회에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